

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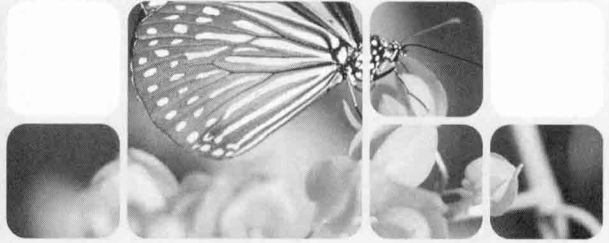


소

식

경

계



환경부, 바다에 버려지던 음폐수, 에너지원으로 활용

환경부는 해양배출의 방법으로 처리중인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수(이하 "음폐수"라 함)를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2012년 말까지 전량 육상에서 처리하기 위한 "음폐수 육상처리 및 에너지화 종합대책(2008~2012)"을 마련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동 대책에는 2012년까지 약 4,500억원을 투자하여 음폐수의 에너지화 시설 확충, 공공하수처리시설 병합처리와 함께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 감축, 처리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 배출에서 처리까지 단계별 대책을 포함하고 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단계에서는 민간환경단체 등과의 음식문화 개선 및 음식물류폐기물 줄이기 홍보의 지속적인 추진, 수거수수료 현실화, 수거체계 개선 등을 통해 폐기물 감량을 적극 유도하고, 처리단계에서는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의 다양화를 위해 에너지화시설 5개소(1,460톤/일) 이상 신설, 기존시설의 공정개선 및 재활용제품의 품질개선을 통한 소비촉진으로 음폐수 자원화 및 감량을 추진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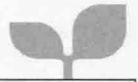
한편, 권역별로 공공 및 민간의 음폐수 전용 에너지화시설(1,660톤/일) 설치, 환경기초시설 병합처리(2,000톤/일)를 통한 적정처리를 유도하고, 지자체 및 업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eco-star 프로젝트를 통한 음폐수 에너지화 신

기술 개발·보급, 현재 이용가능한 기술조사 및 시범사업을 통해 최적모델과 지침을 작성하여 보급하는 한편, 관련분야 전문가로 기술지원단을 구성하여 지자체 및 업계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계기관과 음폐수 육상처리 추진협의회를 통해 주기적인 추진상황 분석·보완, 처리업체 지도·점검 강화, 홍보교육 등을 통해 대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그동안 어민단체와 환경단체가 요구하던 폐기물의 해양배출량 감축추진으로 해양환경 보전과 수산자원 보호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바다에 버려지던 유용한 유기자원의 에너지화를 통해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새로운 에너지원의 개발과 함께 기후변화 협약에 따라 급급히 대응하여야 할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1일 5,000톤의 음폐수를 에너지화할 경우 천연가스 버스 1,500여대를 운행할 수 있는 메탄가스 생산 또는 7만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 생산과 함께 연간 1,093천톤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해양환경관리법(구, 해양오염방지법)에서는 1988년부터 육상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하수오니, 가축분뇨, 폐수 및 수산가공잔재물 등은 연안에서 멀리 떨어진 3개의 지정된 해역에 투기를 허용하여 왔으나, 2005년 이후 해양배출 감축 추진으로 뚜렷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7년 기준으로 총 해양투기량은 약 7백5십만 톤이며, 음폐수는 발생량의 약 58%인 1백7십여



만톤이 지정된 해역에 투기되었다.

국립환경과학원, 새 가구 - 한달 지나도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30%밖에 안 줄어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윤성규)은 가구류 및 전기·전자제품 등 각종 생활용품에 대한 오염물질 방출량 수준 및 방출특성 파악을 위하여 24종의 생활용품에 대한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및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1m³ 와 24m³ 크기의 방출시험 챔버를 이용하여 가구류는 28일간, 전기·전자제품류는 제품 가동 전·후에 오염물질 방출량을 측정하였다.

※ 방출시험용 챔버 내부는 일반적인 실내공간과 유사하게 온도 25℃±1, 습도 50%±5로 설정하여 시험

가구류에 대한 오염물질 방출량 조사 결과, 새 가구류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감소하였으나, 28일 이후에도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량은 평균 81%,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은 평균 30%정도 감소에 그쳤다.

따라서 생산된 지 1개월이 경과한 제품이라도 실내로 들여놓거나, 새 가구 구입 후에는 환기를 충분히 해 줄 필요가 있다.

목질재, 스펀지, 가죽류 등 다양한 소재가 복합적으로 사용된 소파의 경우, 7일차에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량은 21.64mg/unit·h,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은 2.86mg/unit·h로 기타 가구류 평균값에 비해 각각 6배 정도 많이 방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오염물질 방출량 조사 결과, 열이 발생하지 않는 가동 전에 비해 열이 발생하는 제품 사용 중에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량이 약 2배~100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급적 사용시간을 줄이고 장시간 사용 시에는 잦은 환기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린터 및 복사기 등 사무기기는 대기모드보다 인쇄 시에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량이 5배 이상 증가하였고, 흑백 인쇄보다 컬러 인쇄 시 오염물질 방출량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나 사무기기에 사용되는 토너가 오염물질 방출의 원인 중 하나로 파악되었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향후 생활용품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 방출시험방법을 제시하고 지속적인 생활용품 오염물질 방출시험을 실시하여 쾌적한 실내공기질을 위한 생활용품 오염물질 관리방안 마련에 활용할 예정이다.

환경부, 이젠 정부 정책소식도 문자로 받아 본다

환경부는 지난 2월부터 수질원격감시체계(TMS)의 정책 추진상황을 휴대폰으로 실시간 문자 서비스한다.

지자체, 유역(지방)환경청, 폐수배출사업장 등의 업무담당자 약 1,000명에게 법령개정, 수질 TMS 설치·운영, 부차기한 정보, 교육계획 등 정책 전반의 추진상황을 휴대폰 메시지로 제공한다.

※ 메시지 예)

- 수질TMS 설치·운영에 관한 환경부고시가 1월 7일부터 시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환경관리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질TMS 설치방법 교육이 2월 1일 10시 환경부에서 있습니다.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정책을 실제로 이행하는



현장 담당자들이 별도의 수고없이 정책상황을 실시간으로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지금까지 기상상황, 실종 아동 찾기 등 사회적 이슈 등에 대한 문자서비스 사례는 있었지만, 정책소식을 이처럼 문자 서비스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수질TMS 정책은 추진상황을 수질TMS 구축 대상 공공시설 및 사업장에 신속히 전달하여 현장에서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서 지금까지의 홍보자료 발간, 광고,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 공문서 등 홍보 방법 외에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환경부에서는 2월부터 수질TMS 구축이 완료되는 2009년말까지 매월 3~5회 이상 문자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현장의 업무담당자들이 정책 추진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안정적 정책추진은 물론 정책홍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는 수질TMS 문자서비스 운영성과를 평가해서 현장 실무담당자들의 정책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거나 신속히 알려야 하는 다른 부문의 환경정책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수질TMS 정책은 일정규모 이상의 하수·폐수처리시설, 폐수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2009년까지 단계적으로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설치토록 하여 수질오염사고 예방, 사업장 스스로 공정 개선 유도, 배출부과금의 합리적 산정 등 수질관리를 선진·과학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며, 2006년부터 환경관리공단과 업무대행 계약을 통하여 추진하고 있다.

2009년까지 설치대상 공공시설, 사업장은 약 600여개소이다.

킨텍스, 2008 자원순환·미래에너지 전시회 개최



한국 최대 환경에너지 산업 종합전문전시회인 '2008 자원순환·미래에너지 전시회(자원 및 폐기물관리 전시회-신재생에너지 특별전)'가 3월 25일부터 28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KINTEX)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회는 환경 정책과 산업계 현황을 직접 반영하는 전문전시회로 신재생에너지, 폐기물 처리, 수처리 관리를 테마로 진행된다. 특히 사후처리기술(EOP: End of Pipe)에서 사전처리 기술(FOP: Front of Pipe)분야로 해당산업의 지향점이 변화함에 따라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강화하였다. 대표적으로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생태산업단지구축사업'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그 외 폐기물의 운반, 저장, 최종처리 등 프로세스별로 전시 아이টে를 구성한 폐기물 처리관, 신재생 에너지 해외 선진기술 및 설비 전시를 보여줄 신재생 에너지관, 그리고 폐수처리 및 상하수도 설비, 담수화 기술 등으로 구성된 수처리 관리관 등 각 테마관에서는 관련 제품 및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전시회는 기존의 환경전시회와 차별화하여 옥외 전시장에서 중장비 환경 처리 기계를 가동, 시연하는 것도 큰 볼거리 중의 하나다. 옥외 전시장에 목조건축에 태양광



을 적용한 실물을 직접 전시한다. 더불어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재활용기술개발사업단 등 각 분야 10여 개 환경전문기관들로 구성된 행사 조직위원회가 전시특별관을 구성할 예정이다. 특히 경기도 해외진출기업들이 특별관으로 참여, 한국의 환경기술 수출 사례를 소개한다.

또한 국제 심포지움, 세미나를 통해 관련 분야 종사자들이 효율적인 비즈니스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 것이 이번 전시회의 큰 특징이다. 특히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는 발전차액지원제도 중간 공청회 등 전문 세미나가 동시 개최되어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대거 참가한다. 그 밖에 중국, 독일, 일본 환경에너지 시장에 대한 국제세미나를 전시회 기간 중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일본 최대 환경박람회인 동경 N-환경전 및 중국 국제환경보호박람회와 업무협약 체결 및 KOTRA 해외 네트워크를 이용한 홍보를 통해 전시회의 국제화를 도모했다.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 지역 환경기관 공무원 및 바이어를 초청하여 국내 기업들이 참여하는 수출입 상담회를 개최, 국내 환경에너지 기술 수출에 주력한다.

산업자원부, 고효율 인버터 지원기준 강화

산업자원부가 전기에너지 절약을 위해 보급을 장려하고 있는 고효율인버터의 지원기준이, 안전성은 높이고 지원단가는 낮추는 방향으로 강화된다.

고효율인버터는 전동기(모터)의 회전속도를 조절하여 전기소비를 절감하는 장치로, 산업자원부는 고효율인버터 보급사업과 관련, 금년부터는 ▲지원금 지급대상을 인버터 유닛과 리액

터, 노이즈필터를 동시에 설치한 경우로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인버터 지원단가를 절감전력 kW당 평균 19만원에서 15만원으로 낮추며 ▲지원금을 제3자에게 위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1월 15일부터 잠정 중단되었던 한전의 지원금 신청 접수를 2월 18일부터 재개했다.

산업자원부는 최근 고효율인버터 지원금 신청이 급증하고, 일부 판매업자들이 무료설치 등의 광고로 고객을 모집한다는 제보가 잇따르자 지난 1월 중순부터 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

실태조사 결과 일부 판매업자들은 고효율인버터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장치인 인버터 유닛만 설치하는 방식으로 설치비용을 통상의 설치방식보다 60% 이상 낮추는 사례를 발견하였다.

또한 대다수 판매업자들이 지원금을 예상하여 고객의 설치비용을 깎아주고 나중에 판매업자들이 고객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지원금으로 수령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산업자원부는 인버터 유닛만 설치할 경우 안전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리액터와 노이즈필터를 최소한 갖추도록 하였으며, 고효율인버터 보급률이 높아짐에 따라 자연스러운 시장전환을 위해 지원금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판매업자들이 지원금을 수령하는 3자 위임지급 규정은 당초 설치고객의 편의를 위해 도입하였으나, 왜곡된 판매구조를 조장하고 판매업자의 매출을 축소할 우려가 있어 원칙대로 지원금을 설치고객에게만 지급토록 하였다.

이번 산업자원부의 조치는 이미 설치계획서를 접수한 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 지난 2월 18일 이후에 설치계획서를 접수한 건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㉔